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22

미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상승 피로

•미 증시는 주요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과 전망, 경제지표의 부진 및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 장 초반 주요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과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국가활동지수와 10월 기준주택판매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자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 출발. 금일 260억 달러 상당의 2년물 변동금리부채권(FRN)과 150억 달러 상당의 물가연동채권(TIPS)의 수요가 부진하자, 수익률 곡선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러셀 2000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가 지속되며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다우 -0.18%, 나스닥 -0.59%, S&P500 -0.20%, 러셀200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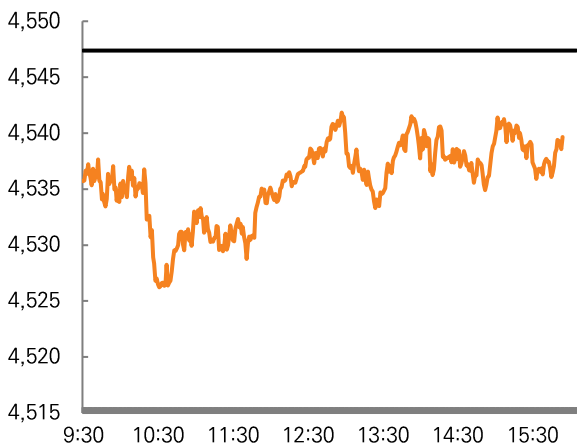
특징 종목: 테슬라 ↑, 아마존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0.83%), 부동산(-0.47%), 경기소비재(-0.38%) 등 7개 업종은 하락한 반면, 헬스케어(+0.61%), 소재(+0.40%) 등 4개 업종은 상승.
 •(상승) 테슬라(+2.38%)는 내년에 인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2년 이내에 기가팩토리 건설에 약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지난 주, 인도 정부는 전기차 수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하락) 아마존(-1.53%)은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지난 주 약 2.4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앞으로 더 많이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한국 증시 전망: 엔비디아 실적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6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3.74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하락. KOSPI는 0.5~0.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 가. 특히,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2차전지에 대한 ‘수급 손바뀜’이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즉, 순매수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에 2차전지 관련 업종(화학, 철강, IT가전)의 주간 평균수익률은 3.2%로 국내증시 1.6% 대비 아웃퍼폼. 이러한 수급 추세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 또한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및 가이드언스의 영향도 주목 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10.42	+0.77	상해종합	3,067.93	-0.01
KOSDAQ	817.01	+0.48	홍콩항셱	17,733.89	-0.25
DOW	35,088.29	-0.18	인도센섹스	65,930.77	+0.42
NASDAQ	14,199.98	-0.59	유로스톡스 50	4,331.90	-0.24
S&P 500	4,538.19	-0.20	영국	7,481.99	-0.19
캐나다	20,109.97	-0.67	독일	15,900.53	-0.01
일본	33,354.14	-0.10	프랑스	7,229.45	-0.2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소비수요 ② FOMC 의사록

미 증시는 주요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과 전망, 경제지표의 부진 및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 장 초반 주요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과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국가활동지수와 10월 기존주택판매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자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 출발. 금일 260억 달러 상당의 2년물 변동금리부채권(FRN)과 150억 달러 상당의 물가연동채권(TIPS)의 수요가 부진하자, 수익률 곡선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러셀 2000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가 지속되며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소비수요

장 시작 전, 대형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주가에 부담을 주며 향후 소비수요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 주택 자재 판매업체인 로우스(LOW)는 연간 매출 및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하였고, 백화점 체인 콜스(KSS)와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BBY)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분기 매출을 발표. 특히, 향후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 축소에 따른 수요가 고르지 못할 것이라 점이 부담으로 작용.

한편, 이번 주 추수감사절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본격적인 연말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내 최대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인 렌딩클럽은 미국 성인의 약 60%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전해.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연휴에 과소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에 앨리뱅크는 소비자들의 절반이 연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질 계획이라고 밝혀.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3분기 어닝시즌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

FOMC 의사록

11월 FOMC 의사록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 그 동안 증시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하에 연준의 긴축 종료 시점 임박과 내년 중반 금리 인하를 가격에 선반영. 다만, 연준 위원들은 2%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주택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제한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결국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수요가 얼마나 둔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만약 이전과 같은 탄탄한 수요가 지속된다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 배제 못해.

Eco 리뷰: 기존주택판매, 국가활동지수

10월 기존주택판매는 계절조정 연율 279만채로 전월대비 4.1%나 감소. 이는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390만채)과 이전 수정치(395만채) 모두 하회. 지속적인 주택 재고 부족과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 한편, 10월 평균 기존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391,800달러를 기록.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10월 국가활동지수는 -0.49를 기록하며 9월 수정치 -0.02(이전 0.02)와 예상(0.00)을 크게 하회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특히, 전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해 11월 이후 처음. 미국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 시장은 냉각과 침체 간의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 아마존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0.83%), 부동산(-0.47%), 경기소비재(-0.38%) 등 7개 업종은 하락한 반면, 헬스케어(+0.61%), 소재(+0.40%) 등 4개 업종은 상승.

(상승) 테슬라(+2.38%)는 내년에 인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2년 이내에 기가팩토리 건설에 약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지난 주, 인도 정부는 전기차 수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Symbolic(+40.15%), 벌링턴스토어스(+20.74%),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8.72%), 메드트로닉(+4.60%), 디스 스포팅 굿즈(+2.17%), 바이두(+1.91%), 아베크롬비 앤 피치(2.41%)는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강세. C3.ai(+1.68%)는 오픈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며 상승.

(하락) 아마존(-1.53%)은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지난 주 약 2.4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앞으로 더 많이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아메리칸 이글(-15.80%), 콜스(-8.57%), 로우스(-3.12%) 등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으로 약세. VM웨어(-4.96%)는 중국 정부가 브로드컴(-1.46%)의 인수를 조건부 승인 했다는 소식 나온 이후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철광석, 8개월래 최고치 기록

(금속) 중국의 철광석(함량 63.5%) 선물 가격은 11우러 톤당 134 달러 이상 올라. 이는 탄탄한 수요에 대한 기대와 공급 우려로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중국 정부가 주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용자 등 정책적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 나와. 이는 약 1조 위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등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 한편, 세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BHP빌리턴의 호주 사업장 내 약 400명의 열차 운전사가 파업을 의결. 이는 주요 철광석 생산 국가인 호주의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탄산리튬 가격인 수요 감소와 안정적인 공급 영향으로 11우러 톤당 14만 위안으로 하락폭을 확대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향후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제조 기업들의 재고 확대 의지를 낮춰. 또한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영향으로 기업들의 재고도 크게 증가한 상황. 한편, 세계 2위 리튬 원료 생산업체인 Mineral Resources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호주에서 리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엔비디아 실적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6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3.74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하락. KOSPI는 0.5~0.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 가. 특히,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2차전지에 대한 ‘수급 손바뀜’이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즉, 순매수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에 2차전지 관련 업종(화학, 철강, IT 가전)의 주간 평균수익률은 3.2%로 국내증시 1.6% 대비 아웃퍼폼. 이러한 수급 추세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 또한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및 가이던스의 영향도 주목 할 필요.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89	대형 가치주 ETF (IVE)	-0.38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41
소매업체 ETF (XLY)	-0.29	소형 가치주 ETF (IWN)	-1.30
온라인소매 ETF (EBIZ)	-1.09	대형 성장주 ETF (VUG)	-0.30
미국 인프라 ETF (PAVE)	-0.29	중형 성장주 ETF (IWP)	-0.08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2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9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2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84	미국 국채 ETF (IEF)	+0.1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26	하이일드 ETF (JNK)	+0.13
바이오섹터 ETF (IBB)	-0.8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11	물가연동채 ETF (TIP)	-0.21
반도체 ETF (SMH)	-1.4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헬스케어	1,509.34	+0.61	+1.39	+1.16
소재	507.47	+0.40	+1.44	+7.07
필수소비재	734.90	+0.35	-0.34	+3.39
유틸리티	314.48	+0.22	+0.22	+6.74
커뮤니케이션	239.71	-0.01	+2.12	+5.48
산업재	893.52	-0.05	+1.00	+6.98
금융	581.99	-0.21	+1.57	+8.61
에너지	642.91	-0.21	-0.46	-6.97
경기소비재	1,325.78	-0.38	-0.09	+10.81
부동산	225.74	-0.47	+0.31	+9.95
IT	3,268.99	-0.83	+0.97	+12.65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77	-0.03	-0.46	Dollar Index	103.917	-0.41	-1.84
브렌트유	82.45	+0.18	0.00	EUR/USD	1.0915	+0.58	+2.14
천연가스	2.85	-0.69	-7.86	USD/JPY	149.63	-0.73	-1.25
금	2,021.80	+1.00	+1.72	GBP/USD	1.2462	+0.39	+1.92
은	24.22	+0.88	+3.00	USD/CHF	0.8857	-0.34	-1.88
알루미늄	2,258.50	+0.58	+1.23	AUD/USD	0.6515	+0.70	+2.42
전기동	8,449.00	+0.22	+2.60	USD/CAD	1.3723	-0.23	-0.57
아연	2,546.00	-0.68	-2.10	USD/RUB	89.5080	+0.27	-3.06
옥수수	489.00	+0.26	-1.11	USD/BRL	4.9098	+0.85	-0.60
밀	582.75	+2.28	-2.38	USD/CNH	7.2173	-0.43	-1.22
대두	1,377.25	+0.62	-1.01	USD/KRW	1,296.75	-0.01	-1.53
커피	168.55	-1.52	-1.66	USD/KRW NDF1M	1,293.43	+0.21	-1.7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00	-1.94	-4.69	스페인	3.560	-4.20	-7.70
한국	3.710	-3.50	-27.00	포르투갈	3.213	-4.00	-8.00
일본	0.703	-4.70	-15.90	그리스	3.768	-6.00	-13.60
독일	2.566	-4.50	-3.40	이탈리아	4.317	-2.80	-9.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